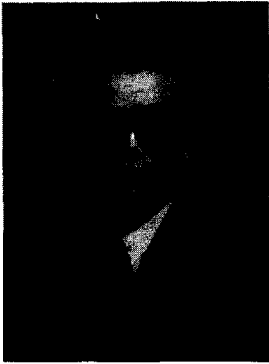


93年 우리經濟 어떻게 變化할까?

— 두들어진 國內外 經濟變化
에 슬기로운 對應을 —



송 기 철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 目 次 ■

1. 92년은 정치의 한해
2. 경제체질 약화의 92년
3. 93년의 정부경제 예측
4. 93년의 민간경제 예측
5. 어려운 93년의 우리경제
 - 가. 미국의 변화
 - 나. 지역화 경제의 확대
6. 우리의 변화와 대응

1. 92년은 정치의 한해

말도 많고 일도 많았던 92년도 이제 얼마가지 않아 저물고 또 다시 더 말도 많고 일도 많으면서 또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 예상되는 93년을 맞게 될것 같다.

우리는 매년 이런 연말 연시를 맞게 됨에 따라서 지난 한해를 회상 반성하고 새로운 한 해를 내다 보면서 새로운 구상과 설계를 하고 그를 실현하도록 착실한 노력을 하는 일은 절실히 요망되는 일로 보여진다.

내년을 내다 봄에 앞서서 내일은 오늘의 연장 그 대로는 아니로되 내일과 오늘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92년을 이모저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와 경제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강해서 「정경유착」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하여간에 92년은 어느 뜻으로 볼때에 「정치적 한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느낌을 갖게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정치적 한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선거의 해」였었다고 할 수 있고 또 많은 나라들에게서는 정치적 변화내지 분쟁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에서 치열한 총선거로 정치 물갈이가 있었으며 40대 클린턴 대통령의 당선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이웃 일본에서도 여당 내부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내부 분열이 일어 나고 있어서 정치불안의 요소를 안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등소평 영도하의 중국정치는

그의 고령화, 원로급의 노쇠화, 보·혁진영의 이념적 정책적 대립등으로 이번의 14전대회에서 대폭적인 장년층의 물갈이와 개혁파의 진출등으로 정치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리 이루어진 개편하의 중국정치가 과연 안정되느냐 등등 많은 정치적 숙제를 남겨 주고 있다. 또한 해체후의 구 소련 사정도 심상치 않다. 엘친의 CIS가 과연 안정되어 엘친의 정책방향으로 갈지 혹은 보수파의 힘에 눌러 보수회귀를 할지 또는 더 급진적으로 돌진할 것인지 등등 북방정책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도 구 소련을 에워싼 여러 나라들의 정치정세 불안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우리를 에워싼 주요 국가의 92년 정치정세를 보건대 바야흐로 「정치의 해」였다고 할 수 있다. 또 기타 국가에서도 대동소이한 양상을 보이는 국가들이 많았다.

특히 우리로서 주목해야 할 정치현상으로는 국내정치와 결들여 북한의 정치정세도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92년의 정치상황이 아닌가 한다. 김일성의 고령화에 따라 김정일의 2세대체제의 확립, 소련과 중공과 우리나라 수교에 따르는 체제강화의 움직임 그리고 남북회담의 난항, 핵사찰을 에워싼 국제적 분쟁등 남북간의 화해는 아직도 멀다는 느낌을 주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편 우리 국내정세도 완전히 정치의 해 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원고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공고가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민자, 민주, 국민 3당의 대통령후보의 공식적이 아니지만 대통령선거 유세가 진행되어 대통령선거 분위기가 고조되어 92년이 「정치의 해」임을 실감시키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민자당 대통령후보를 에워싼 내분과 탈당, 국민당의 창당과 결들인 현대그룹, 여당정부의 갈등과 체제구축, 민주당의 비호남세 접목, 새 한국당 출범과 김우중씨의 파동, 그리고 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 탈당과 중립정부 선언등등 문자 그대로의 정치의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

을 깊게 하게 된다.

2. 경제체질 약화의 92년

이러한 국내외적인 정치적 파동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로서 이에 따라 92년의 우리 경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92년의 우리 경제의 모습을 가지고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리쿵 저리쿵 말이 많고 또 낙관론과 비관론, 거품경제론과 경기침체론, 조종론과 구조론 등등 많이 상반된 견해를 보인 것이 우리 경제의 92년 실상이다.

92년 우리 경제의 실상을 보건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주 92년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수치가 나와있지 않아서 3·4분기까지의 실적을 갖고 또 그의 수치를 연장 유추함으로써 대체적인 경제 모습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92년 상반기에 들어 국제수지 적자 축소 및 물가 오름세 진정등 경제안정 기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등 침체양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경제기획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안정화대책의 영향으로 소비 건설등 내수 부문의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어 3·4분기인 7~9월중 실질경제성장률은 5%선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91년 동기의 7.8%는 물론 지난 1·4분기(1~3월)의 7.4%, 2·4분기(4~6월)의 6.0% 성장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측은 올 하반기중 민간소비증가세 및 설비투자가 둔화되어 91년 동기의 7.6% 보다 낮은 6.5%~7.0%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1·4분기중 8.6% 2·4분기중 4.3% 등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된 설비투자

의 경우 하반기 중에는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통계청에서 조사한 3·4분기중 제조업생산동향을 보면 내수의존도가 높은 가구, 음료품, 의복등 경공업분야는 물론 그 동안 생산증가를 주도해 온 중화학공업분야에서도 생산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낳는 상황에 있다.

그 중 중화학공업 분야는 지난 상반기중 12%의 견실한 생산증가율을 기록했으나 3·4분기 중엔 절반 수준인 6%의 증가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석유정제업이 91년 하반기 이후 40%씩의 높은 증가세에서 3·4분기에는 20.7%로 급락했고, 산업용 화학물 운수장비 등도 증가율이 둔화됐으며 91년까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조립금속제품 기타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등은 3·4분기중 생산감소세를 나타냈다. 더욱 문제는 수출과 내수가 둔화되어 재고가 급증하고 있고 그의 소화를 위해서 판매격화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감산등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실이 직시되어야 하겠다.

한편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국제수지 상황을 보면 연속 2개월간 무역흑자가 92년 10월에는 소폭이지만 적자로 반전되었다. 10월중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91년 10월 보다 7.7% 증가한 71억4천9백31만달러, 수입은 1.2%가 늘어난 71억6천9백64만달러로 2천33만달러의 적자(통관기준)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91년 10월 통관기준 무역적자가 4억4천9백만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규모가 4억2천9백만달러나 감소한 것이다.

92년들어 10월말까지의 누계를 보면 수출은 91년 동기기간보다 9.6% 늘어난 6백30억1천3백만달러, 수입은 1.6% 증가한 6백84억4천2백만달러로 54억2천9백만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으나 91년 같은 기간(98억5천6백만달러 적자)에 비해서는 적

자폭이 44억달러나 감소했다. 상공부는 수출이 회복추세를 지속하고 수입수요로 안정돼 연간적자 규모는 91년(96억5천5백만달러) 보다 47억달러 정도 줄어든 50억달러 내외에 그칠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총외채는 8월말 현재 4백26억1천만달러로 7월에 비해 11억1천만달러가 증가했다. 총외채는 장·단기로 보면 단기는 1백82억6천만달러로 8월중 11억7천만달러가 늘어난 반면, 장기는 2백43억5천만달러로 6천만달러가 감소했다. 외채구조가 장기는 줄고 단기가 늘고 있다는 것은 외채가 늘어나고 있는것과 겹들여 좋은 일이 아니다.

대외자산은 2백96억5천만달러로 7월에 비해 10억9천만달러가 늘어났다. 총외채에서 대외자산을 뺀 순외채는 1백29억6천만달러로 전달 보다 2천만달러 증가했다. 우리 나라의 총외채는 83년말 4백3억8천만달러로 4백억달러선을 돌파한 후 85년말 4백68억달러를 고비로 줄어들기 시작 87년말 3백56억달러로 줄었었는데 그 이후에 늘기 시작하여 92년 8월말 총외채가 4백26억달러로 되어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이 전망된다.

한편 굉장히 우려되었던 물가가 한때는 두자리수의 물가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하였으나, 경기침체 농산물의 풍작,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임금상승율의 둔화 등등 여러 요인으로 근래에 드물게 안정, 6%선에서 안정될 것이 아니냐 하는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안정이냐에 대해선 많은 의문이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밑에서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만 진정한 안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데 우리의 92년 경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93년의 정부경제 예측

정부는 93년에도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데 경제운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경제기획원은 93년도 경제운영방향을 실질경제성장률 6~7%, 국제수지균형, 소비자 물가 상승률 5% 이내로 잠정 설정하였다고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안정기조의 정착, 설비투자활성화, 산업경쟁력 향상등을 93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되, 안정화 정책의 수단을 직접적인 규제에서 탈피,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93년 상반기중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고 기업들의 자금수요에 맞춰 통화증가를 목표를 일정한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설정할 방침이라 한다.

또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총액기준 3% 이내에서 억제, 93년도 실질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유지하는등 임금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93년중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경상수지적자폭을 93년의 40억달러 수준에서 10억달러 이내로 축소, 균형기조를 달성하는 한편, 94년 부터는 국제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고,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대책을 마련하리라 한다.

이와 함께 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해 건축규제조치를 부분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주택건설 할당제, 상업용건축규제 조치등 직접적인 규제는 가급적 취하지 않으리라 한다. 이밖에 금융산업이 산업경쟁력 향상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자유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진흥, 정보산업육성, 직업훈련제도 개선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리라 한다. 그리고 93년도 경제운용계획은 93년초 출범할 새정부측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하니 최종안에는 다소의 수정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4. 93년의 민간경제 예측

이와 같은 정부예측과 아울러 각 민간경제연구기관에서도 나름대로의 예측을 발표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인 매일경제연구소와 포항제철부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예측한 「93년도 경기전망」에 따르면 93년에도 소비증가세는 계속 둔화하겠으나 설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살아나면서 수출도 회복세를 유지, 우리 경제는 92년 3·4분기를 바닥으로 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92년의 경제성장 예상치 6.9% 보다 다소 높은 7.4%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92년 0.8%와 4.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 및 설비투자는 정부의 설비 투자촉진책 및 건축규제 완화 움직임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공공 투자확대에 힘입어 93년에 6.0%와 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92년 추정치 13.2% 증가에 이어 93년에도 13.1%의 견실한 신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수입은 8.6% 증가에 그쳐 무역 적자규모가 10억달러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규모도 92년 추정치 41억달러에서 28억달러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같은 민간기구의 예측에다 정부 부처중에서도 실무부처인 상공부는 93년도 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 92년 보다 17억~19억 달러 정도가 개선된 31~33억 달러 정도의 적자에 그칠 전망이라고 한다. 상공부는 93년에 출범할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것을 전제로 세계경기와 국내경기의 회복속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추정한 93년도 수출입 전망에 따르면 수출은 92년 보다 5.6~8.2% 늘어난 8백28억6천만~8백49억3천만달러, 수입은 2.9~5.5% 증가한 8백59억4천만~8백81억1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공부가 추정한 단계별 93년도 수출입전망은 1단계로 세계경기의 회복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국내경기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수출은 92년보다 8.2%(64억3천만달러)가 늘어난 8백49억3천만달러, 수입은 5.5%(46억1천만달러)가 증가한 8백81억1천만달러에 이르고 따라서 무역수지적자는 31억8천만달러에 그쳐 92년보다 18억2천만달러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세계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국내경기의 회복도 완만한 추세를 보일 경우를 가정한 2단계는, 수출은 6.9%(54억3천만달러)가 증가한 8백39억3천만달러, 수입은 4.5%(37억6천만달러)가 늘어난 8백72억6천만달러에 달해 무역수지 적자는 92년 보다 16억7천만달러가 줄어든 33억3천만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3단계는 세계경기와 국내경기의 회복이 모두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로 수출은 5.6%(43억6천만달러) 증가에 그친 8백23억6천만달러, 수입은 2.9%(24억4천만달러)가 늘어난 8백59억4천만달러에 머물러 무역수지적자는 30억8천만달러로 92년보다 19억2천만달러 개선된다는 것이다.

상공부의 이같은 전망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전망한 수출 8백41억달러, 수입 8백82억달러를 전제로 한 41억달러의 무역수지전망과 대우경제연구소의 수출 8백56억달러, 수입 9백1억달러를 전제로 한 45억달러 적자전망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전망보다 적자규모가 10억달러 이상 적은 것이다.

한편 92년에 6.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는 93년에도 5.7%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율은 92년에 785.6원까지, 그리고 93년에는 804.5원 수준으로 상승, 수출신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매일경제연구소는 93년도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과 수출증가에 힘입어 92년에 6.9% 성장 예상치보다도 다소 높은 7.4%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 어려운 93년의 우리 경제

위에서 정부 그리고 민간경제연구기관의 경제예측을 대체로 소개했으나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듯이 정부나 민간경제연구소의 93년 변화예측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으로 낙관적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정부·민간 경제연구소가 낙관적 예측을 하고 있는 최초의 오류는 미국정치판도의 오판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의 클린턴이 미국경제의 소생, 가정가치의 건전화를 내걸고 압도적인 승리로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서 세계경제에 큰 변화가 올것이란 예측을 가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이미 당선직후에 벌어지고 있는 EC와의 무역마찰등이 심상치 않은 징조로 보여진다. 수출에 그리고 대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해야 할 우리 93년 경제를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리 낙관만 할 수 있는나에 크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는 세계각국의 무역보복조치는 가뜩이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두고 볼 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 예견되기도 한다.

가. 미국의 변화

앞으로 UR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타결될지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는 하지만 경제강국들이 말로는 자유화, 공정거래를 내걸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타국 간섭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적 여러 조치가 강화될 것은 뻔하다. 이에 우리의 대미경제환경, 대EC경제환경이 92년보다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나. 지역화 경제의 확대

그러면서도 각 지역의 지역화는 확대되어 갈 것이 예상되며 이 지역간에도 소 지역화 경향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지역화 경향중 우리는

범 아세아 태평양경제공동체형성(APEC)을 EC와 NAFTA경향과 결하여 주목해야 할 변화 추세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범 구라과경제공동체를 에워싸고 각국간의 이해관계로 마찰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경제공동체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며, NAFTA도 어느 정도의 곡절은 있지만 일보 전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세아 태평양경제공동체운동도 그 지역내에 있는 각국 그리고 소 지역공동체와의 이해관계를 이런 저런 곡절을 겪어 가면서 약간의 진전을 보이는 방향으로 갈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구 소련권 국가들도 혼란을 계속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을 슬기롭게 하면서 안정화방향으로 갈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CIS를 위시한 일부국가는 93년에도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동남아세아 여러국들의 경제공동체운동이 더욱 진전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로서는 북동아세아 국가들간의 경제동향과 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반도를 에워싼 북한과의 관계는 그리 쉽게 해빙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때 그때의 이해관계로 교섭만이 지속될 것이며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이리 본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북방정책에 그리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한반도를 에워싼 북한, CIS, 중국, 일본과의 관계이며 좀 더 멀리는 미국과의 4강 관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두만강 경제개발계획, 동해경제권, 황해경제권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보아 아직도 조짐은 국제적 수준에 오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부품, 소재산업, 엔지니어링, 기계분야가 약한 것으로 그것은 선진국 특히 일본에 많이 의존해 왔다. 그것을 들여다가 비교적 싼 임금으로 가공해서 메이드·

인·코리어로 수출해서 먹고 살아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중국이 천안문사건 이후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본격화 하면서 각 지역간, 각 도시간에 그들 나름대로의 「잘살아 보세」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그들의 경제개발은 괄목할바 있으며 이것이 우리들이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경제」를 12억에 가까운 인헤 전술식 저렴한 노임으로 우리의 해외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 까지 잠식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93년에도 더욱 더 심화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잠식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동쪽에서는 머리인 기술의 일본, 서쪽에서는 몸으로의 낮은 임금으로서 중국이 몰려오는 협공적 샌드위치적 입장에 놓이는 경제양상이 93년에는 더욱 더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우리는 일본에게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더 멀게는 또 더 크게는 중국에서의 경제압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범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인력이 12억, 국토가 광대박물해서 없는 자원이 없으며 중공업기술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로서 다만 자본, 경공업기술과 자본주의적 관리기술이 빈약하나 자본과 경공업기술을 해외화교와 외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자본주의관리기술에 부심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은 자본, 경공업기술, 관리기술을 갖고 있으며 홍콩 역시 자본, 경공업기술과 관리기술을 그리고 싱가포르 역시 자본 경공업기술 그리고 관리기술을 갖고 있다. 이들 모두는 중국민족으로서 상호보완하는 관계에서 중국에 자본, 기술 그리고 관리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어서 중국의 발전은 정말로 놀라운 상태에 있다. 중국의 성장산업이 모두 우리의 주력업종으로의 우리의 미국, 일본, EC등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동남아 여러나라들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 등 신진 저개발국가의 추월노력 역시 93년도 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진다.

6. 우리의 변화와 대응

이렇게 93년의 세계정세는 변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에 대응해야 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하고 있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92년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한국도 역시 정치의 한 해 였다고 할 수 있다. 92년이 정치의 해라는 것은 정치의 하이라이트인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이 대통령선거를 에워싸고 여러 가지 정치파동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주장, 민자당의 내분과 탈당, 새한국당의 창당, 중립정부선언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의 과열된 대통령선거운동 열풍등등이 바로 그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에 따른 중립내각선언은 그 취지나 배경을 어느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대통령책임제하의 정치하에서의 중립내각이란 원칙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말도 되지 않는 무책임한 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책임지는 정부시책을 할 수 없고 다만 그렇게 되는 대로 시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이번의 추곡수매에 있어서 벌어진 시책에서 엇 볼수 있다. 정부는 5%인상수매 8백50만 섬을 우리 경제현실, 재정현실로 보아 그리 책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가격을 좀 더 대폭 올리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농민의 표를 의식하는 각정당은 민자당이나 민주당, 통일국민당 모두 더 높은 추곡수매가격과 더 많은 수매량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12%의 가격인상 1천5백만섬의 수매량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의 여당인 민자당조차도 그러하니 정부는 정당의 뒷받침

이 없기 때문에 소신있는 시책을 펼수 없으니 무책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이런 사태는 대통령임기말에 나타나는 후유증과 겹들여 도처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 일수록 뚜렷한 목표를 갖고 그를 강력하게 수행하는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 우리 경제가 나아진다고 할 수는 없다. 취임 1년간은 신임 대통령도 국사를 잘 모르고, 또 선임자의 예산을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시책을 펴게 마련인데 그 새로운 사람들로 국사나 행정 관리에 그리 능숙하나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엇볼 수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런 사정은 우리 나라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93년의 우리 경제의 국내외에 걸친 여건은 그리 밝은 것은 아니며 일단은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면 방도가 없느냐하면 그렇지 않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우리 하기에 달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있으며 그는 H이론의 실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H이론이란 목표는 Happiness 즉 행복의 추구 그것도 개인에서 출발해서 더 나아가서 가족, 기업, 국가, 민족, 세계, 인류의 행복추구로 연결되는 균형잡힌 것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Hand 즉 손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더 열심히 일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일하지 않고 등쳐서 공짜를 먹으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그런 풍토는 불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Head 즉 머리를 써서 하되 그 머리는 기능, 기술, 관리에까지 이르는 넓은 것이어야 하되

특히 기술 입국이라는 입장에서 첨단기술을 포함한 기술향상에 가장 역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Handle 즉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내수 아닌 특히 해외에서의 수출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서 벌어서 국내를 살찌워야지 국내에서 벌어서 외국에 나가 낭비하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이러한 경제적 형태 이외에 비경제적으로 Headmanship 즉 리더쉽이 확고하고 강하게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한 리더쉽은 결코 독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처칠, 드골, 대처와 같은 강한 리더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Honesty and Honor 즉 정직성과 명예심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리더성과 사명감이란 정신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93년의 우리 경제는 국내외여건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활로는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한다.

舍己，毋處其疑。處其疑，卽所舍之志多愧矣。

施人，毋責其報。責其報，併所施之心俱非矣。

자기를 버렸거든 의혹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의혹에 사로잡히면 버린 뜻에 부끄러움이 많을 것이다.

남에게 베풀었거든 그에 대해 보답할 것을 요구하지 말라.

보답할 것을 요구하면 베푼 마음까지도 함께 헛된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 채근담(菜根譚) 중에서 —